

“민식이법’ 처벌 절대 과하지 않다”

광주교법, 버스가사 위험법률심판 제정 기각 “과잉 금지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판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도입됐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처벌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고의범에 준하는 수준의 형량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에 한해 가중처벌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법 시행 이후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이 최근 운전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교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차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59)씨가 신청한 위험법률심판 제정을 기각했다.

A씨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특가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험법률심판을 제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42km

(제한속도 시속 30km)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어린이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형량이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음주 운전 사망 사고와 형량(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비슷하고 고의범인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법정형 상한이 높게 규정됐다

는 점에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고의범과 성격이 다른데도, 고의범만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처벌 수준도 적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법안에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라는 모호한 의무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12조 1항, 3항)과 민식이법 내용 등을 종합해 해당 법안이 규정한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그런 상태’를 의미하므로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상해죄, 상해치사죄, 위험운전치사상 등 다른 범죄와 비교해 법정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호범의, 죄질이 달라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경중을 비교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어린이 안전보장을 도모하려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고 범죄행위의 불법성, 죄질 등을 평가할 때 피해, 결과 뿐 아니라 사회 윤리적 가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민식이법이 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췄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거나 입법자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1심 형(刑)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이뤄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원심(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풀어보자, 통일” 가족 퀴즈대회 개최

광주 서구, 10월 4일 온라인

광주 서구가 오는 10월 4일,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풀어보자, 통일’ 온라인 가족 평화통일 퀴즈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0·4 남북정상선언 14주년을 기념,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줌(ZOOM)을 활용해 생중계로 진행되며, 참가자에게 문제풀이 접속링크가 전송될 예정이다.

참가자는 가정에서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화상으로 문제를 풀고, 진행자는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중계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이번 퀴즈대회는 통일상 1팀, 평화상 5팀, 자유상 10팀, 이음상 20팀 등 총 36팀에게 시상하며, 상금은 총 3500만원이다.

오는 9월 26일(일)까지 네이버폼(<http://naver.me/5kLwFyt6>)을 통해 신청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행정지원과 인권협력팀(062-360-74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18 정신적 피해 배상 첫 판결

대법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 상대 손해 청구 가능” 피해자 등 줄소송 예상...일괄 배상 방안 강구해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제한한 5·18 보상법은 위헌이라는 결정(광주일보 5월 31일자 6면)이 이번 판결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족들의 소송이 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피해를 일괄 배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약)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패소한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이후 A씨는 2010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지난 2012년 국가를 상대로 3억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1994년 9900여만원을 지급받아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청

구를 기각했다.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긴다고 본 당시 5·18 보상법(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6조 2항)에 따른 판결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현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A씨가 지원금을 보상받았어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봤다. 또 대법원은 1·2심에서 A씨가 구금 상태가 끝난 뒤로부터 30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민법상 장기 소멸시효도 넘겼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5·18보상법’ 위헌법률 심판의 본안 소송(손해배상)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 광주지방법원 403호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회용품 쓰지 않습니다 24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소회의실에서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 직원들이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위해 각 부서에 전달할 개인용 텀블러의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아시아심혈관국제심포지엄 성료

한·중·일 등 100여명 참여

제3회 아시아 심혈관 국제심포지엄이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지난 23일 대한심장학회 기초과학연구회(회장 안영근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와 중국, 일본, 남아시아 심장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 연구자들을 비롯하여 재미 한인 연구자들과 아시아 주요 국가의 심장학 전문가들 100여명이 참여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심장학회 주관하는

세계적 학회인 국제심혈관기초학회에 앞서 개최됨으로써 미국·유럽 등 세계적 심장학 전문가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심포지엄에서는 KAIST 고규영 교수의 특강이 있었으며, 각각 참여자들의 심혈관질환 기초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아시아 심혈관 국제심포지엄은 아시아권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국제학술대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일자리 매칭데이’ 기업 모집

광주 북구, 30일까지

광주시 북구가 오는 30일까지 ‘당신의 내일을 두드리세요! 두드림(Do!Dream!) 2021 일자리 매칭데이’에 참여할 기업 80여개사를 모집중이다.

북구는 취업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구직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일자리 매칭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참여 신청은 북구청 누리집을 참고해 오는 30일까지 일자리정책과로 전자우편, 공문, 방문 등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취약계층 학생에 방역물품 꾸러미

전남교육청 3만명에 지원

전남교육청이 2학기 전면등교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올 하반기 취약계층 학생에게 방역물품 꾸러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5억원을 편성, 1인당 5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꾸러미를 지역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중 취약계층 3만여명에게 지원한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취약계층 학생에게 방역물품 꾸러미(13억원)를 지원해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방역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정미라 전남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이번 방역물품 지원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건강하고 밝게 코로나19를 이겨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평등한 교육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창립 44주년 기념

예금 특판

- MG뛰어라정기적금 1년 **4.0%**
- MG NEW 정기적금 1년 **2.6%**
- 상상모바일정기예금 1년 **2.1%**

대출 상담 환영

- 부동산담보대출
- 신용대출
- 정책자금(햇살론)
- 임대보증금(전세자금)대출

상담 환영

※한도소진시 조기종료 되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민생애드밴스

건설경제조합

월산사거리

대성사거리

전현숙국립

광주 남구 독립로 161 (월산동)

Tel. (062) 366-8111

돌고개역지점

KT서광주지사

무등사에 연구원

농성빛어울림아파트

광주 남구 월산로151번길 2 (월산동) <돌고개역 2번출구>

Tel. (062) 366-8112